

# “코딩 모르면 초등교사 힘들다” SW이해 필수학점으로

초·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  
2020년까지 중학교 3학년도 적용  
대학별 심화전공 교육과정 개선 등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예비초등교원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는다. 교대 등의 컴퓨터관련 필수이수학점이 확대되고, 내용도 기존 컴퓨터 활용보다는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로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 사업(SWEET·SoftWare Education for all Elementary Teachers)을 신규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2일까지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등 전국 10개 국립교



초·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예비 초등교원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는다. /오픈엑스

대와 한국교원대, 제주대 등 국립중학교 원양성대학 등 총 12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각 대학에 총 23억4000만 원을 소프

트웨어 교육 용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별 지원금은 대학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 등 평가 결과와 학생 수, 참여교원 수, 부속학교 수, 수혜학생 수를 고려해

확정된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초·중학교에서 필수화됐다. 올해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서 시행되고, 2020년에는 중학교 3학년에도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과서와 보조교재 개발과 보급,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 지원, 실습 인프라 확보, 교원 충원과 전문성 강화 등 종합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 마련에 나섰다.

기존 현직교원 연수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병행된다. 올해까지 전체 초등교사의 약 30%인 6만명과 중등 정보·컴퓨터 자격 소지교사 8천여명이 교육을 받고, 이번 사업을 통해 교원양성단계부터 소프트웨어 역량 교육이 진행된다.

초등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사업은 공동참여 과제와 대학별 과제로 운영된다. 대학 공동참여과제는 초등교원양성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것으로, 12개 대학의 핵심교원이 참여해 교육에 필요한 과목과 교수요목, 필요 이수 학점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학별 과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필수이수학점 확대와 강의 내용 개선, 컴퓨터 심화전공 교육과정 개선 등으로 이뤄진다.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초등예비교원의 지도역량을 강화해 소프트웨어 교육이 학교현장에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봄빛’ 물든 산수유 마을  
포근한 날씨를 선보인 11일 오후 전남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마을 일대에 봄을 알리는 노란 산수유꽃이 활짝 피었다. 구례에서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구례산수유꽃축제’가 열린다. /연합뉴스

## 광주시, 혁신도시 연구기획TF 운영 활성화

문화·에너지·ICT융합·농생명 분야  
시정시책 연계·발전방안 모색 기여

광주시가 광주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혁신도시 연구기획 TF’ 활성화에 주력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혁신도시 연구기획 태스크포스(TF)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문화, 에너지, ICT융합, 농생명 분야를 담당하는 4개 분과위원회와 이를 총괄하는 운영위로 구성, 혁신도시 연계사업 발굴과 추진상황 점검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정주여건 개선이나 시정시책과 연계한 다양한 발전방안 모색에 기여하는 등 일부 주관부서의 긍정적인 면은 살리면서 분과위원회 주관 부서와 분과위원들의 관심 부족 등 다소 아쉬운 부분은 적극 개선키로 했다.

특히 분과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정예화하고, 위원도 기존 대학교수와 연구원에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 등을 추가 참여시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과위별 회의도 격월 의무적으로 열고, 이를 점검하는 반기별 보고회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공동사업 발굴과 협력 강화, 지역 인재 육성 등 산·학·연·관이 연계해 지역의 동반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병규 시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은 “올해는 ‘혁신도시 시즌2’가 시작되는 첫해로, 하드웨어적인 면에 집중하던 시기에서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시기로 변화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TF팀이 혁신도시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발굴 등을 통해 광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시스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

## ‘만족도 92점’ 다람쥐버스 노선 3개 추가

출근시간 맞춤버스인 ‘다람쥐버스’ 노선이 3개 더 늘어난다.

서울시는 26일부터 장안·답십리, 세곡·수서, 신림 지역에 다람쥐버스를 새로 투입해 운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람쥐버스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승객이 몰리는 구간 사이만 반복 운행해 만원버스의 혼잡도를 낮춘다. 서울시는 현재 8761번(광흥창역~국회의사당), 8771번(구산중~녹남역), 8551번(봉천역~노량진역), 8331번(마천사거리~잠실역) 구간에 다람쥐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노선은 ▲8221번(장안2동 주민센터~장한평역~활영소 사거리~답십리역) 5대 ▲8441번(세곡보금자리지구~수서역) 4대 ▲8552번(신림종합사회복지관~우림시장~신림체육센터~신림역) 4대다. 운행 시간은 오전 7시~9시다.

서울시는 차내 혼잡 정도(재차인원 60명 이상), 혼잡구간 길이(왕복 10km 내외의 단거리), 혼잡지속시간(1시간 내외) 등을 고려해 이번 신설 노선 구간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람쥐버스를 개통한 2017년 6월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용자 수는 총 41만4254명(일 평균 2436명)에 이르고 밝혔다. 일평균 이용자 수는 8개월 사이 34.1% 늘었다. 기존 노선 버스 이용객수는 하루 평균 110~180명 줄었다.

버스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

T)에 ‘혼잡’으로 표출되는 횟수도 25~40% 감소했다.

다람쥐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다람쥐버스 이용 시민 설문조사 결과, 종합만족도는 일반 시내버스(81점)보다 11.1점 높은 92.1점이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기존 노선의 혼잡도 개선에 도움이 됐다(96.2%)’, ‘타 지역 노선신설에 찬성한다(95.8%)’ 등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응답자의 6.2%는 다람쥐버스 도입 이전 출근시간대에 버스를 타지 않았던 사람(지하철 5.7%, 자가용 0.3%, 도보 0.2%)으로 나타났다. 시는 다람쥐버스가 버스의 승승분담률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시는 다음달 16일부터 퇴근 시간대에도 다람쥐버스를 시범 운영한다. 기존 노선 4개 중 퇴근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높았던 8761번(신촌로터리~국회의사당)을 평일 저녁시간대인 오후 5시 30분~오후 7시 30분에도 운행한다.

시는 차내 혼잡현상 완화 효과를 모니터링한 뒤, 타 노선의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흥서 도시교통본부장은 “‘수요대응형 버스서비스’의 발굴과 운영 개선을 통해 버스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중 기자

## 서울시, 남산공원·삼청공원 등 ‘유아숲체험원’ 47개소 개장

서울시가 남산공원과 삼청공원 등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 47개소를 12일 동시 개장한다.

유아숲체험원은 어린이들이 자연물을 장난감으로 삼는 숲 체험장으로 기획됐다. 이용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정기간 기관과 유아를 둔 개인으로 구분된다. 지난해까지 총 87만8610명이 이용했다.

서울시는 올해 체험원 사전 신청을 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506곳에 이르고 11일 밝혔다. 해당 기관들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인근 유아숲체험원에서 상주하는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숲 체험을 할 수 있다.

유아숲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도 유아숲을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사전신청이나 비용 없



서울 서대문구 인왕산 유아숲체험원의 뱃줄놀이. /서울시

이 평일 또는 주말에 가까운 유아숲체험원을 방문해 부모와 아이들이 자유롭게 숲 체험을 하면 된다.

다만 평일에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유치원생들과 겹칠 수 있다. 시는 올해 체험원 5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중 3개소가 시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진다. /이범중 기자 joker@

## 남도 매화, 일본 봄꽃 여행객 사로잡나

한국관광공사가 일본인 관광객 2000명 유치에 위해 ‘한국 봄꽃여행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는 오는 4월까지 한국 봄꽃을 테마로 대규모 봄철 방한상품 판촉과 함께 개별 여행자(FIT)대

상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JTB, 한류교통사, 요미우리여행사 등 일본 주요 여행사와 공동으로 일본인이 선호하는 주력 관광 소재인 벚꽃, 산수유, 매화 등 한국의 다양한 대표적 꽃들과 함께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의 봄

철 방한상품을 집중 개발했다.

이번 봄꽃상품 코스에는 산수유로 유명한 구례, 이천 및 매화 산지 광양 등 신규 봄꽃 명소와 함께 아산, 부여, 목포, 남원 등 새로운 국내 여행지가 대거 포함됐다.

앞으로 담양, 목포, 보성, 하동 등을 소개하는 가이드북도 발간해 국내 지역관광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 광주=김남중 기자